

먹을거리 뒤에 숨은 정치 “기가 막히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음식에 관한 47가지 진실 크레이그 샐스 지음 | 이경식 옮김 휴먼앤 북스 펴냄 | 1만원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를 비롯해 요즘 식탁위에 음식이 범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요리로 완성된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 하나를 만들기 위해 소비되는 곡류나 육류, 비료 등에 관해. 또한 이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펼쳐지는 수많은 로비와 정부 정책까지, 무엇을 알고 있을까?

영국 유기농 커뮤니티 운동을 이끌고 있는 이 책의 지은이는 “식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인지 충분히 알고 음식을 가려 먹는다면 지구촌 사람들의 건강과 정의는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이라고 머리말을 통해 조언하고 있다.

이 책은 결국 ‘먹는 행위’로 귀결되는 이 복잡한 관계의 땅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47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 이면에 있는 진실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 진실은 대체로 충격적이다. 한 예로, 다들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또 일상적으로 먹는 정크푸드에 대해 단지 잘못된 우리의 음식문화를 한 번 일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정크푸드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치적 측면을 이 책은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햄버거 한 세트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7.50달러다. 하지만 시중에서 팔리는 가격은 2.49달러다. 이처럼 햄버거를 싸게 팔 수 있는 것은 햄버거 재료인 가축사료, 설탕, 풍기름에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급성장한 패스트푸드 산업은 비판의 주범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의 폐단을 적나라하게 고발해 화제가 됐던 영화 ‘슈퍼 사이즈 미’의 한 장면.

정부·기업 이익 위해 소비자 건강 위협하는

식품산업과 정부 정책, 현대인 식생활 날날히 고발

“자립적 유기농산물 생산·소비는 최선의 대안”

이 됐다. 과도한 설탕과 지방을 섭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 할인매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는 과일과 채소, 빵과 우유와 같은 물품을 배치하고 수시로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눈에 띄는 이들 물품을 세일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하는 게 아니다. 책이 쉬워 빨리 처분해야 하는데다, 세일을 통해 할인매장의 가격이 싸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상술일 뿐이다.

상식을 깨는 황당한 얘기도 이 책에는 들어 있다. 옥수수 발효해 만드는 에탄올은 환경친화적 연료로 각광받는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보면 실망하게 된다. 미국 코벨 대학교는 에탄올 1리터를 생산하는 데 화석연료 1.7리터가 소모된다고 추정한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까지 지급해 옥수수 에탄올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조장하고 있다. 그래야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비료와 제초제, 농약, 영농기계 등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지은이는 이처럼 정부나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건강을 희생하는 식품산업과 정부 정책, 그리고 여기에 길들여지는 현대인의 식생활을 날날히 고발한다.

지은이가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파헤치고자 하는 것은 패스트푸드, 집약농업, 녹색혁명 등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음식산업의 ‘정치성’이다.

오늘날의 ‘음식혁명’ 이면에는 거대 식품산업과 정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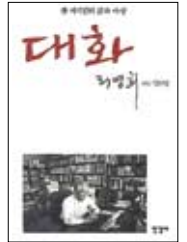
이권결탁 메커니즘이 도사려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각 주제마다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다. 소수의 몇몇 거대 식품관련 기업이 정부와 결탁하여 소규모 자영농을 내몰고, 저개발국가를 점점 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환경을 망치고, 우리의 건강까지 빼앗는 독과점과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이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문구가 이 책에 나와 있다. 패스트푸드에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이며 미국 정부 보조금의 가장 큰 수혜자인 ‘아처 다 니엘스 미드랜드(ADM)’ 사장의 말 중 다음과 같은 것이 녹음돼 폭로되었다. “우리의 경쟁자는 사실 우리의 친구이다. 고객이야말로 우리의 적이다.”

따라서 이 책은 “먹을거리 정치의 폭로”라 할 만하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먹을 음식을 스스로 기르고 선택하지 않은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과 그 대안이 곁들여져 있다. 이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너무나 거시적인 이 진실 앞에서 우리는 당혹스러워하고 오히려 무기력에 빠져들 수도 있다.

광범위한 사례를 들어 먹거리 문화의 위협을 고발한 지은이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환경친화적인 음식문화다. 지은이는 “정부 보조금 없이 지역공동체에서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먹는 것이 우리 자신과 지구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김주임 기자 jkim@buddhapia.com



대화-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 리영희 지음 | 임현영 지음 한길사 펴냄 | 2만 2000원

‘사상의 은사’ ‘지식인의 사표’로 불리는 리영희 교수(75·前 한양대 교수)의 삶과 사상을 담은 자서전이다. 진실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아홉번이나 연행되어 다섯번 구치소에 가고 언론계에서 두 차례, 대학에서 두 차례나 쫓겨나야 했던 리영희 선생의 삶과 사상이 선생의 육성으로 생생히 전달된다.

스스로를 ‘60% 저널리스트, 40% 아카데미션’으로 말하는 리영희 선생은 무엇보다 ‘이 땅에서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울까 하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생각하고 깊이있게 제시한다. 자신의 글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이론이나 새로운 담론을 제시한 게 아니라 오직 ‘진실을 추구’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책은 현대사의 현장마다 치열하게 부딪쳐온 한 지식인의 구체적인 기록과 증언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흥미롭다. 한마디로 술술 읽힌다. 술술 읽다가 눈길을 확 끌었던 대목이 대담자와 다소 논쟁을 빚는 민족과 계급의 문제였다. 리영희 선생은 4·19의 성공과 이어진 좌절을 회고하면서, 군사쿠데타를 부른 요인 중 하나로 진보적 혁신계열인 좌익 정치세력들의 갈등과 대립을 꼽았다.

실천적 지식인의 표상 리영희

그의 논지는 조선 500년 당쟁의 역사로 확대되면서, 현대까지의 우리 민족사를 볼 때 이같은 분열적 요소들이 ‘민족적 유전자’를 형성한 것이 아닌가하는 회의론을 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같은 상층적 분열주의는 강력한 지배권력이 있어서 통제력이 작용할 때는 나오지 않지만 통치권이 와해 내지 이완됐을 때 나타나며, 예를 들어 광복직후 남북의 상황에 이에 견주어 있다.

여기에 대해 대담자인 임현영은 민족성으로 초점을 돌려버리는 위험성을 들어 우려를 나타내지만, 리영희는 ‘민족적 면책론’이라 반박한다. 그런 견해가 자칫 지나치게 민족적 완전성, 즉 절대로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는 자만적 불가류성(不可謬性)의 과오를 범하며 이런 편협관적인 자세는 일본인들의 야마토(大和) 민족우수론이나 독일 나치의 아리아민족 순결주의로 신장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리영희 선생은 역사에서 지도층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지만 국민대중은 나라를 염려했다는 단순명료한 이 분별적 관점에 대해서도 과학적 태도가 아니라고 입장을 확대한다. 이같은 이분법은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고 실천적으로는 레닌이나 스탈린의 계급관을 반영한 것인데, 이를 아무런 수정없이 수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 자서전이 나오기까지 여러 우리유목원이 있었다. 리영희 선생은 고회를 맞이한 지난 2000년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 여파로 오른쪽 손과 다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부득불 선생의 구슬을 녹취해 진행되었고 원고지 2700매 분량으로 완성되었다. 초벌 원고를 만드는 데만 2년이 걸린 만큼 책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 ‘진정한 지식인’으로서 진실을 추구하고 이를 실천한 선생의 삶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김도경(한양대 사회학과 강사)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가득 수요증가로 시종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 043-647-2378, 011-467-1472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법적 다이어트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나와, 건강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풍뎡하라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면이 쌓이고 관절 사이에서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페트영강판 슬라브, 사철,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로공사)

서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질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산사조청**

◆ 산사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산사조청은 산천 조물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산사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웃이오르지않는 **산사참꽃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사靑미래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치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산사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현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죽민간장을 100% 천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산사조청월빙자연당

1100g×2병 = 18,000원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옛날 병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산사조청월빙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원순희)**
●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사조청원**